

地上天國과 世界開闢 可能性에 관한 研究

安鍾沄*

目 次	
緒論	
本論	II. 世界開闢을 위하여
I. 地上天國建設 可能性	1. 東方禮儀之國의 先導任務
1. 天國·神仙·仙境論	2. 仙道의 世界化
2. 仙境의 條件論	結論

緒 論

한 宗教의 目的論이 「無自欺」로 시작하였다면 信仰人들에게 「眞」「眞實」「眞人」될 것을 첫 出發로 한 宗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宗教人은 「所望」으로 출발하여 그것을 達成하기를 成事하였다면 有目的的 實人이 될 것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無目的的 虛人으로서 一生을 끝내고 말 것이다.

宗教人界가 아니라 凡人類社會라 하더라도 各者 目的이 있고 成事하는 사람은 成功者로 추앙하게 되며 그런 이는 희귀하여 所望人의 位階가 더욱 現人界와 높아간다.

특히 宗教人들은 所望이 凡人 이상의 境地를 추구하기 때문에 高意人임에는 틀림없으나 實意 高人이 될 것인가, 虛意人이어서 高人이 못 되어 幻想人이라 評價될 것인가 兩者 中 擇一되지 않을 수 없다.

各 宗教人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要請은 無信仰者들보다 次元 높은 生의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體驗을 갖을 것이요, 虛想으로 幻境을 헤메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일 수 없다면 차라리 無宗教人과 비교하여 그 以下일 것이다. 왜냐하면 各 宗教派에서 修行하는 節次가 自由로운 人間生路를 많이 義務的으로 規制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凡人들도 希望이 높고 豊饒하다면 좋은 일이지만 實現되는 바 없다면 妄想人임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宗教人の 所望이 實現될 可能性이 全無하다면 그이는 夢生人이요 實生人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 宗教人이 크게 깨닫고 虛人 夢生人이 되는 바를 경계하여 大意를 實踐하는 證人の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既成宗教가 文化宗教로 共認되는 것도 虛想 幻想에 빠지게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요 健全한 精神世界를 擴大하여 줌으로써 有益함을 自認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既成宗教人の 想念의 세계가 現實과 乖離(괴리)된 非理論을 전개한다면 似而非 宗教人과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既成宗教가 文化宗教로 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 信仰人들의 修敎生活 水準에 따라 個別的으로 결정되는 것이요 宗教가 劃一的으로 所望像이 되게 하지 않는다.

마치 一流大學校에 合格했다 해서 全校生이 모두 首席優等生이나 首席卒業生 되는 것이 아니라 四千名 入學生들이라면 每學年 每學期마다 一等生으로부터 四千等生 末席 最下位生이 있고, 四年 후 卒業할 때도 首席 卒業生으로부터 四千等 末席 卒業하거나 卒業 不可하여 明年 이후로 再修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七十여세 넘도록 大學敎授生活를 하다 볼 때 宗教生活 자체가 大學生들의 修學生活과 너무나 一致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大學生 成績을 엄격하게 평가하면 절대로 同一 성적이 나올 수 없고 百名 學生은 一等부터 百 등이 중복하지 않고 序列이 上下 順序로 正然함을 實感하게 된다. 敎授가 철저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等差가 비슷하다 하겠지만 學生들은 모두가 受講態度가 같을 수 없고, 그 보다도 大學生 個人들의 頭腦細胞構造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生物學的 事實 때문에 百·千·萬·億 人生들의 意識構造가 같을 수 없고 誠心 意志도 同一人이 있을 수 없는 現實이 科學的 事實界인 것이다.

既成 文化宗教人界의 實態도 이와 같이 觀望하는 것이 公正할 것이다. 一流大學 首席卒業한 사람과 末席卒業한 사람의 修學한 知識의 質·量은 天·地같다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文化宗教人들의 修道의 差等도 이렇다는 精神評價觀을 갖아야 할 것이다.

不可視的 精神界라 하여 宗教의 경우 甲 宗教, A 宗教, 가 宗教는 모두 上等宗教라 규정하여 버리면 一流大學生은 모두 上等知性人이요 三流大學 以下大學生은 下流라고 평가하는 社會觀念은 너무나 非科學的이다. 一流大學의 中級學生들 보다는 二流大學 上級學生이 優秀할 것이며 一流大學 末席學生은 二流大學 中級生만 못할 것이며 三流大學 上級生을 따라오지 못할 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一流 二流 三流大學이 不變 계급으로 固定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열심히 공부하여 好成績을 올리든 學生이 自慢心에 빠지면 下落의 길을 擇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이 宗教人의 경우 既成文化宗教人이라하여 修身 修心 修道에 誠意가 없으면서 教勢를 확장함에 專念하고 驕慢(교만)한 사람은 信仰修道와는 거리가 멀어 질 것이다.

더구나 新興宗教人들은 既成宗教들의 長短點들을 敎育으로 삼아 새로운 宗教目的像을 正立하기에 노력할 것이며 항상 敬虔(경건)한 마음을 간직할 것이요 恍想界로 凡人을 眩惑(현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거듭하는 말이지만 目的像을 華麗한 言語로 수식을 얼마나 잘 하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어떻게 實現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일인 것이다.

本 宗教 目的論 第一條가 ‘無自欺’ ‘精神開闢’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眞實을 앞세운 宗教임으로 ‘거짓’ ‘僞’ ‘假’ ‘不實’ 등과 같은 事實과 僞造界를 排他하는 것으로 第一步를 출발하는 宗教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어서 ‘精神開闢’ 내세운 것은 萬物의 靈物으로서의 人間의 特權은 精神을 위대하게 發揮하는데 있는바, 一身의 富貴榮華를 위해서 精神活動에 專念한다면 可能할 수 있겠으나 그런 사람은 尊貴하다 할 수 없고 그것을 서로 競爭的으로 獨占하기에 다투는 人間社會相은 아름답기는커녕 醜惡하다 아니할 수 없다. 人間의 精神을 이렇게 活用하여서는 아니 되겠다.

人間界가 惡人界가 될 것인가 善人界가 될 것인가, 그것이 精神의 擇할

수 있는 自由權인 것이다. 그래서 宗教目的 一條에서 無自欺에 이어 精神開關을 제시한 것이다.

人間들의 精神狀態가 그때마다의 歷史를 창조하는 바 善人이 多數라면 善人史의 方向을 택할 것이고 惡人이 多數라면 惡人史로 下落할 것이다.

여기 精神開關이라 함은 人類史를 墮落(타락)하여 가는 進路 逆轉시키자는 大改革을 強調하는 소리이다.

車を 운전하는 技士들에게 飲酒運轉하는 것을 警告하는 것과 같다. 飲酒運轉까지는 아니더라도 雜心 상태에서 운전하던가 解弛(해이)한 정신상태에서 운전하는 技士에게 心機一轉을 督促하는 革心辭이다.

精神開關이라 해서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는 作心이라 생각하여서는 아니되겠다. 人心 모두에게 「이렇게 도」 「저렇게 도」 定心할 수 있는 自由 自律心を 改善으로 上向하는 革新心を 이름이라 하겠다.

사람이 살고 있는 家屋도 古家化되는 것을 新築하여 新屋으로 改家하는 것처럼 改心하는 것이 精神開關이라 할 수 있다. 凡人이 想像할 수 없는 奇異한 思想이라 생각하여서는 옳지 못할 것이다.

目的論 第二條는 ‘地上神仙實現’과 ‘人間改造’를 내세웠다.

論文集 14輯에서 筆者는 ‘地上神仙과 人間改造 可能性에 관한 研究’라는 主題로 論文을 쓰면서 먼저 ‘神仙’에 관한 概念을 多角的으로 살피고 ‘實在했던 또는 實在할 수 있는 존재’인가 考察하였다.

그러나 神仙은 明白히 歷史的 實在人이 아니기에 歷史書에 기록된 바 없다. 즉 實存人이라면 時間性和 空間性으로 규제되어야 存在條件을 갖춰서 認定되나 時·空條件에 無關한 理想人은 假象的 存在임을 피할 수 없다.

無時空的 神仙을 理想하는 우리 東洋人의 思想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前 論文에서 筆者는 다음과 같이 結論 지웠다.

「神仙 있기를 굳게 믿는 사람은 그 心志가 高潔하다는 사실을 是認해야 하겠다. 왜냐하면 神仙되려는 前提條件이 人間으로서 秋毫의 缺點이 없는 完人像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는 人間은 凡人 以上の 高貴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宗教人이라면 次元높은 人間임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神仙像이라면 眞·善·美·聖이 統一된 完人일 것이므로 歷史上 있었던

四大聖人の 位階 以上이어야 할 것이다. 그를 目的像으로 하는 宗教라면 얼마나 偉大한 宗教일까 그 理由를 알 수 있다……」¹⁾

過去에 神仙이 있었다 없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眞·善·美·聖 完人像을 所望하는 그이가 참으로 高貴하다고 尊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完人像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反眞 反善 反美 反聖과 方向이 180° 相反하는 사람인 것만은 認定할 수 있으며, 完眞 完善 完美 完聖을 向하여 接近途上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이는 ‘神仙道上人’으로서 道를 行하는 道人 道士임에 틀림 없어 反道人과는 次元이 埒다.

이것을 모르고서 「地上神仙實現」을 目的하는 宗教를 荒唐無稽(황당무계)한 幻想教(환상교)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筆者는 前 論文을 통해서 神仙이 과거에 實存했던가의 문제를 떠나나, 現在 이후 未來 길이 있을 수 있는 存在像으로서의 神仙은 完人되고자 하는 目的像으로 提示하였다.

人生으로 태어나서 뚜렷한 目的意志가 없는 者는 生의 攝理로 태어났다 사라지는 草露같고 蜉蝣(부유)같은 人生과 다를 바 없다. 大人으로 大成할 것인가 小人되어 動物的 生으로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 目的意志의 有·無와 大·小에 있는 것이다.

筆者는 神仙을 幻想像으로 보지 않고 現存在의 最高像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높은 所望을 갖고 修行하는 人間은 반드시 低次元에 만족하는 者와 비교할 수 없는 高次元界의 主役에 틀림없다.

萬物과 同格인 ‘사람’은 山野를 뛰고 蒼空을 나는 獸鳥들처럼 뜻이 없이 生의 本能에 따라 生動할 뿐 高質的 삶을 알 까닭이 없다.

宗教人은 凡人과 달리 높은 뜻을 찾아 높게 살아가는 것, 凡人은 獸鳥들이 人生을 알지 못 하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絶對者 神과 通靈하던, 吾心이 佛心임을 自覺하던, 神仙같은 高潔人 되겠다는 宗教人들은 어찌 低俗界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水準으로 볼 수 있겠는가?

1) 大巡思想論叢 第14輯 90-91面

安鍾沄 論文 「地上神仙과 人間改造에 관한 研究」 結論 參照

그래서 글 쓸때마다 ‘사람’은 萬事 萬物을 구별하기 위한 一般名辭일 뿐
이므로 하등 等級意識이나 尊嚴性이 개입될 수 없는 生物學 가운데 動物科
의 人種으로서 거기 以上도 以下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價値意識이 없는 動物科의 人種인 한 ‘사람’은 他動物과 다를 바 없이 生
의 本能대로 살아가므로 高位存在性이 없으나, ‘人間’은 社會的 存在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옳게 判斷하여 實踐함을 內包한 當爲價値名詞인
것이다.

여기 無意 表音文字인 ‘A·B·C…」나 ‘가·나·다…」같은 文字로는 表現
할 수 없는 有意 表意文字의 獨特한 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 文字로 造語된
概念은 ‘뜻 있고 깊은 말’ 되어 生活化함으로써 價値存在가 될 수 있는 것
이다. 이것을 모르고서 한글 專用主義者들은 우리 人生을 ‘사람’이면 좋지
왜 漢字를 숭상하여 ‘人間’이라 쓰는가? 하고 있다. 그렇게 ‘人間’을 쓰고 싶
다면 漢字로 쓰지 말고 한글로 ‘인간’이라 글씨 쓰고(書) 말만은 해도 좋다
는 式의 한글 專用을 強辯하고 있다.

그렇게 表意文字를 抹殺(말살)하고 表音文字로 語文生活한다면 高位存在
人間이 ‘人間된 깊은 뜻’을 모르고 ‘사람 곧 인간’ 그래서 ‘사람=인간’이라
알고 복잡하게 두 말 쓸 것 없다고, ‘偉大한 人間’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政府는 이것을 바르게 教育해야 할 터인데 爲政者부터 이것을 모르고서
한글 專用을 強行하고 있는 바, 民族 國家의 未來를 下落文化史 되게 하고
있는 것 크게 改革해야 할 것이다.

多幸히 人間位階를 높이는 宗教界 一部에서 動物과 同等한 ‘사람’을 神仙
의 위치로 높이기를 目的論으로 앞세운 점 人生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제 人
間階段에 눈을 크게 뜨고 올려 보아 「나는 지금 動物界를 벗어났는가? 人
間階段에 入段 즉 入道하였는가?」 反省만이라도 해야 하겠다.

이렇게 宗教界에서 ‘人間教育’으로 人間社會를 進歩化하는데 큰 功을 세
워야 하겠다.

第三 目的을 地上天國建設 世界開闢 제시한 바, 바로 全 人類의 所望으로
서 本 論文은 그것이 可能的 目的論일 수 있는가? 可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主旨로 다루고자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無自欺’하여 眞人되는 ‘精神開闢’을 基本으로 내세웠다. 精神開闢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事實을 事實대로 밝히는 無僞로부터 시작하여 옳고 바르고 眞實을 追求하여 갈 때 眞界 즉 眞境이 열린다.

第二 目的 ‘地上神仙實現 人間改造’는 第一 目的을 그대로 實踐하여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사람은 ‘神仙 基本條件’을 갖춘 사람인 것이다.

筆者는 14輯 論文集에서 神仙이 幻想像이 아니라 實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不老 不死 長生하는 神仙觀」이 革新되어야 함을 獨特하게 論述하였다.

즉 時間을 量的으로 보지 말고 質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時間의 質量的 觀論이란, 오늘이 2002年 6月 1日이라는 客觀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年月日, 韓國 檀紀 4335年 陰曆 4월 21日이라는 史實은 量的 時間이나, 이 地球村 各國마다 先進 後進의 差等이 百千 多様な 것은 나라마다 自己 時間을 창조하여 왔기 때문이다. 人生들은 精神狀態 그 能力에 따라 ‘一日 一年에 하는 業績은 同一할 수 없어 現在라고 하는 이 時點의 結果는 各樣 各色인 것이 時間의 質인 것이다. 時間 속에서 各者 이룩한 業績이 時間의 質인 것이다.

이제 神仙과 時間의 質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平凡한 사람이 하는 것과 天才가 할 수 있는 것이 天地의 差가 있는 것처럼, 凡人이 百年 長壽하여 精神活動한 事實은 天才가 30年 동안 開發한 精神世界와 비교할 때 千年을 살아도 따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 어떻게 客觀的 一年 百年이라는 量的 時間으로 均等히 評價해야 하겠는가?

神仙은 現在도 얼마든지 있는 天才의 上位人이라 보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天才의 30年과 凡人의 千年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上位天才는 또 千倍의 能力을 발휘한다고 할 때 $1000 \times 1000 = 1000,000$ 곧 百萬年, 數理的으로 따질 때 凡人이 百萬年 살아야 따라올 수 있는 超能力人이 神仙인 것이다.

이러한 人間이 바로 神仙임을 論理的으로 立證할 수 있다. 神仙이 不老 無病 不死한다는 꿈같은 幻想은 時間의 質的 理解로 새롭게 合理化된다.

왜 不老 無病 不死가 可能한가?

그것은 百萬年 살 수 있다는 數理에 따라, 百年을 다 못사는 人生에게는 現存 肉身으로 보면 百萬年 이상 살 수 있는 精神健康은 不老 無病이라 하겠고 그 결과 不死라 하겠다.

또한 眞理 眞境에 들어가면 變化가 있을 수 없어 百年 千年 萬년이 경과한다고 해도 不變의 연속이어서 肉身の 老·病·死라는 變化가 해당되지 않고 眞精神에 사는 사람은 마음의 變質이 없는 眞心으로 永遠히 살아 '不死'라는 論理가 成立된다.

'不死'를 肉身에서 찾으려면 物理世界만 보고 精神世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生' '死'觀도 肉體만 보지 말고 精神界의 生·死를 알아야 하겠으니, 肉體는 健在하되 그 精神이 죽은 者가 얼마든지 있는바, 衣食住生活 이외에 精神的 所信과 善 意志가 없는 者는 道德界를 떠난 즉 別世한 죽은 者인 것이다.

그러나 肉體는 死했으되 精神은 길이 살아 있어서 千秋萬代 數없는 사람들을 教育하여 偉大한 人間으로 養成하고 있는 證人은 孔子일 것이다. 이 精神은 不死體라 하겠으니 몸은 살아있으면서 옳은 精神이 없는 者는 生身 死心者로 半人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人生觀 生死觀을 넓고 옳게 깨달아 人生을 偉大하게 그리고 長 廣 高 深하여 大人됨의 길을 開拓하기 바란다.

神仙觀도 이러한 論理로 理解하여 實踐한다면 凡人界를 크게 높게 넘어서 生의 體驗이 大幅 革新할 것이다.

本 論文 緒論이 길어진 것은 前(14輯) 論文 神仙論에서 미진한 바 있어 그 連續篇 '地上天國建設'論을 기초 다지기 위해서 그러했다.

本 論文 '地上天國 建設과 世界開關'論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村을 仙境 만들겠다는 것이다.

他宗教가 말하는 天國은 肉身이 갈 수 없는 곳으로 死後 靈魂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韓國民族이 所望하는 宗教는 人生이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現在 있는 곳」을 天國化 하겠다는 것이 特色이다.

그것이 어떻게 可能한가? 그 實踐의 길이 무엇인가?가 本論에서 詳論할

課題이다.

이제 本論에서 典經을 통하여 天國觀을 알아보고 우리 人間들이 天國 仙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方法論을 案出하기로 한다.

本 論

I. 地上天國建設 可能性

1. 天國 · 神仙 · 仙境論

먼저 ‘天國’을 알아보면 ‘神 天使가 사는 淸淨 高潔한 天上의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英語로는 ‘Kingdom of Heaven’으로 人生과 萬物이 살고 있는 地界가 아니라 天上의 ‘天使의 나라’로 地上과는 對照되는 나라이다.

東西洋 모두 天國을 是認하면서 現世人으로는 相見한 바 없는 神 天使가 사는 나라라고 한다.

典經에 따르면 天國을 당연히 있는 天上의 나라로 前提되어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답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天理)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과 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 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²⁾

上帝에 따르면 이미 天國을 이 땅에 利瑪竇가 세우려 하였으나 儒敎의 弊習이 뿌리 깊히 내려 改革할 수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일반 宗敎人이나 凡人이 생각하는 天國과 上帝의 말씀을 통한 天國의 特異한 바는 다음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地下神은 天上의 모든 妙法을 本받아 人世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西洋의 모든 文物은 天國의 模型을 本딴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人間이 想像할 수 없는 別天界가 天國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天國을 追理할 수 있는 것은 現 西洋文物이 天上을 模型 倣한 것이라 하니, 오늘날 東洋까지 西洋文化를 그대로 받아드려 天上의 模造文化여서 그 眞文化境이 天國이다 라고 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西洋文物은 天國을 옳게 받아드리지 못하고

「그 文明은 物質에 치우쳐서 도리어 人類의 驕慢(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天理를 흔들고 自然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罪惡을 끊임없이 저질러 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天道와 人事의 常道가 어겨지고 三界가 혼란하여 道의 根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佛과 보살이 회집하여 人類와 神明界의 이 접맥을 九天에 하소연하므로 내가…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

이렇게 外形만 模造한 假文化가 西洋人에 의해서 이룩한 文化像이다.

地上天國을 건설한다고 外形 위주 物質文化天國을 假造하며 天上과 同格이나 된 듯 교만부리고, 드디어 自然의 征服者 즉 自然의 攝理인 天理를 克服하였다고 天의 上位者然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現文化創造者의 動向이다.

自然의 攝理 天理에 따라 人生도 탄생되었다면 그 理法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順理로 사는 것이요 順理하는 者가 곧 天道를 지키는 것이다. 天地人이 모두 天道를 順行해야 宇宙의 原理에 符合하여 三界가 平和롭다.

그러나 現代文化人들은 天을 가장 높은 줄 알면서 自己 偉力을 過大 評價하다가 天을 克하는 人生을 過讚하여, 人事와 人倫과 天倫까지 버리는 傲慢

2) 典經 : 교운 제 1장 9절 155-156面

(오만)은 無法 末世를 앞당기고 있다.

天國은 幻想的 極樂界가 아니라 天道가 있어 天理대로 順行하여 옳게 最善을 다하는 者 能力껏 幸福을 누리며 누구에게도 被害없이 相扶相助하여 오직 平和만이 있는 나라이다. 그런 나라 사람이 天使라 하겠고 神仙일 것이다.

이제 甌山上帝의 ‘神仙’에 대한 말씀을 들어본다.

「……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³⁾

前 14輯 地上神仙에 관한 論文에서 神仙은 實存人이 아닌 ‘完人像’이라고 歷史上 公認된 四大聖人은 眞·善·美·聖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못보겠으나 ‘神仙’은 全德을 갖췄다고 할 歷史이래 未聞의 完人이라 하겠다. 典經 行錄章에 上帝께서 言明한 바와 같이 아직 神仙은 본 사람이 없으나 後日 上帝가 오실 때 눈 부서서 울바로 볼 수 없으나 13尺身으로 오시니 지금의 얼굴을 잘 익혀두라는 말씀으로 보아 實存人의 첫 神仙이 甌山上帝라 하겠다.

그러므로 東洋人에 의하여 傳來되어 온 神仙은 過去 언젠가 있었던 理想人이 아니라 未來에 꼭 올 完人이다.

神仙은 未來 언제 오는가?

그 날은 오늘까지와 같은 날이 延續된다면 즉 先天이 開闢되지 않는다면 神仙이 出現할 與件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來世할 수 없다.

神仙이 올 수 있는 與件을 갖춘 곳이 仙境이다.

生命을 갖은 草木도 그 植物이 살아갈 수 있는 條件이 맞아야 繁殖할 것이요 맞지 않으면 消滅하고 만다.

最高位 完聖인 神仙이 地獄같은 상황에 도래할 리 없고 그곳은 惡人들만이 무리져서 살아갈 것이다.

神仙이 왜 過去에는 사람들 눈에 나타나지 않았던가?

3) 典經 : 행록 제5장 25절 90面

그때는 神仙이 없었기 때문에 可視할 수 없었던 것이고 ‘神’과 같은 不可視的 存在여서 있어도 못 본 것이 아니다. 神仙은 神이 아니라 人身으로 人界에서 共生할 存在이다. 그 人界는 神仙이 살아갈 수 있는 天界와 遜色없는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

그 곳이 仙境이다.

2. 仙境의 條件論

主題는 地上天國 建設 可能의 문제인바 本項은 仙境 條件論을 언급한다면 天國과 仙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어떤 宗教를 떠나서 一般識見으로는 天國이란 天上의 天帝를 위시해서 諸天使 諸天神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神은 生命있는 物體가 아니어서 不可視的 存在이므로 그 神이 있는 天國 또한 不可視界이나, 仙境은 神仙이 살고 있는 나라로서 神仙이 ‘神’아닌 ‘살아있는 사람’ 人生이므로 볼 수 있는 人間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문제는 仙境은 어디에 있는가? 에 있는 바 그 답은 神仙이 人類史 이래 아직 出現한 바 없다면 그가 없이 그 나라인 仙境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 물음은 仙境이 언제 세워질 것인가? 에 있다.

답은 神仙이 出現해야 그 나라를 세울 것이요 집 主人이 없다면 집 세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天國과 仙境은 구별된다.

그러나 ‘地上天國’이라는 概念은 ‘天國’ 自體가 아니라는데 초점이 있다. ‘地上’은 ‘地’를 떠난 것 즉 ‘超地’가 아니라 ‘地中’ ‘地界內’인 것이다.

따라서 地上天國은 살아있는 人間이 세워서 살아갈 나라인 것이요, 精神靈만이 想念하는 想國이나 死後 靈魂이 가서 살 나라가 아니다.

이러한 나라는 人類歷史 이해 없었고 現在 이후 未來 人間에 의해서 세워질 構想國이다. 마치 百年 전 할아버지가 상상도 못했던 豪華住宅을 살아있는 現存人의 構想에 의하여 建築해서 居住하는 것과 같다.

仙境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우리들이 構想해서 建設할 希望的 未來像이

다. 결코 幻想이 아니라 具體的 設計圖여야 한다.

仙境의 具體的 所望이 없는 사람은 古屋에 살고 있으면서 허무러지는 구석구석을 그때마다 수선하는데 그치고 現代式 文化住宅을 염두에도 두지 않는 사람처럼 一生을 古屋에서 끝내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地上天國은 天神 天使가 下降해서 地上에 建設하는 나라가 아니라 地球人이 設計하여 所望을 實現하는 나라이다.

天國은 上帝와 天神이 세운 나라여서 完全無缺하듯 地球人이 人間社會를 天上과 다를 바 없을 만큼 清潔하고 純善 無惡의 人間界를 만든다면 三界를 自在할 수 있는 上帝이기에 下降할 것이다.

이렇게 人間界가 天上과 다를 것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後天이라 할 것이며 後天社會를 仙境이라 할 것이다. 典經을 텅해서 알아본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⁴⁾

先天時代는 人間史時代라 하겠는 바 人慾自在로 各者 自己 一身만의 欲求 充足의 競爭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競爭者인 너를 排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투쟁의 亂立相이었다. 이것을 人間自力으로 解決하지 못하는 것을 上帝께서 觀望하시고 放任하면 相爭으로 相滅할 것이 틀림없어 根源을 바로잡는 三界公事로 度數를 굳건히 하였으니 天·地·人界가 正常化토록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相爭이라는 逆理 逆行으로 混亂의 極으로 빠지는 人間界를 順理에 따라 順行하여 「나 혼자 못하는 것을 당신이 도와 주고, 당신 혼자 못하는 것은 내가 도와주어 우리 서로 相乘相生한다」 는 相生人間社會의 根源을 다져놓았다고 한다.

4) 典經 : 공사 제1장 3절 98면

人間은 知能이 높은 高等動物이기 때문인지 利己的으로 自身만 잘 살겠다는 我執이 人間社會를 相爭場으로 만들고 있다. 누구인가 上位人이 있어 이것을 原因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亂鬪場으로 擴大될 것은 明若觀火하다.

上帝의 三界公事思想은 이 점에서 希望을 주며 人類에게는 正路의 指導者로 따를 일이다.

다음 같은 말씀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상제께서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後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고 종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도다. 그 때가 더딘 것에 종도들이 한탄하면서 하루 바빠 상제께서 개벽을 이룩하시기만 기다리는도다.」⁵⁾

여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 바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이라」

言明한 言約을 언제 實現시켜 줄 것인가 이다. 上帝는 化天하신 바 後天仙境 누가 實現시켜 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言約을 事實 그대로 믿던 것은 上帝 在世時 종사하던 信徒들 이겠으나 그들도 化天하신 후로는 復活을 苦待하다 그들 모두 죽었다. 그 後孫들도 篤信者일 경우 期約없는 再降臨만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宗教人」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기다리다가 仙境이 되지 않고 自身이 老死할 때 그는 死直前에야 「나는 上帝를 믿고 따르다 속았다」라 할 것이다. 이것은 옳은 宗教人生活을 못한 큰 後悔와 怨望의 告白이다. 이렇게 後悔와 怨望할 宗教生活은 시작이 없었어야 옳았다.

後天 仙境은 언제 올 것인지는 누구도 모르나 上帝께서 確約하신 限 꼭 實現할 것을 믿고 그 指示에 어긋나지 않는 生活을 해야 正信仰人의 길이다.

後天 仙境을 꼭 期待하는 信仰人이라면 上帝께서 세워주는 날을 所望하기 前에 自己自身이 仙境에 갈 資格을 갖추는 일을 先行해야 한다. 그것이 修道인 바 修道없이 宗教人이라면 重病者가 藥먹지 않고 自然히 治病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5) 典經 : 권지 제1장 21절 271面

仙境은 「神仙이 사는 곳」이므로 神仙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집에 貴賓이 來訪한다면 우선 온 家族이 大淸掃해야 하듯 神仙 오기 전에 이 땅을 大淸淨作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貴賓이 내 집에 와서 不快하고 不潔한 곳을 눈 찌푸리지 않게 아름다운 家庭으로 가꾸는 일이 철저해야 하겠다.

仙境을 세우자면 各者 神仙에 버금가는 準神仙 될만큼 그 所望者가 神仙의 資格을 쌓아 올라가야 한다. 그러한 宗教人은 現人間社會의 先導的 模範人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仙境論을 言及할 때 人類社會는 21世紀라고 하여 크게 발전하고 있는 듯 하나, 上帝께서 지적하였듯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神道)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常道)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前節 引用됨)

여기 神仙이 살 仙境일 수 있겠는가? 仙境에는 天·地·人界가 相通하는 常道가 健在해야 하는데 現在 人間社會는 物欲 權欲이 利己欲으로 경쟁하여 나와 너가 相敵이 되어 서로 투쟁을 일삼고 있으니 相剋 無道の 地境이다.

人間社會가 正常化되자면 모든 사람이 지키고 가야할 人道가 健在해야 倫理있는 社會로 無病社會라 하겠는데 相剋 無道社會는 重病人間界라 하겠다. 사람도 살 수 없는 世相에서 神仙이 있을 수 있을까?

病든 사람은 完治가 希望이요 所望이듯 病든 人間界는 無道病 고쳐서 有道社會 하는 것일 뿐이다.

仙境은 바로 無道를 完治하여 三界가 相通하여 天上 地上이 다를 바 없을 만큼 完善界가 될 때 거기이다. 그래서 主題 ‘地上天國 建設’을 天國 仙境論으로 混用하였던 것이다. 地上 神仙은 天上神과 다름이 있다면 神은 非物的 靈明이나 神仙은 肉身을 갖춘 完善 全善人이라 하겠다.

仙境은 善人社會의 새로운 名稱이면서 無惡 全善社會인 것이 特色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宗教人들이 成佛 天神 神仙을 소망하면서 善人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宗教生活을 한다면 技能資格證 取得하려는 사람이 技術實力 없는 것을 賂物(뇌물)로 買收하려는 것과 같다 하겠으니 神明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특히 神仙을 희망하는 宗教人은 神仙要因이라 할 眞·善·美·聖 등 諸德을 두루 갖춰야 하는데 人類史上으로는 아직 없었던 上聖人되려는 要件을 얼마나 修德하였는가 항시 反省해야 할 것이다.

또한 仙境이 되자면 그 主人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可·否가 결정된다. 傳說에 나오는 神仙처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想像境 이룰테면 武陵桃源 같은 仙境은 萬人이 바라고 追求하는 妥當性있는 目的境일 수 없다. 凡人이 따를 수 있고 所望할 수 있는 仙境은 論理的으로 合理的이어서 「果然 可能하겠다」 해야 한다. 그러한 仙境을 宗教에서도 추구해야 宣敎 布德에 說得力이 있어 感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現代에 오면서 自然科學 一途邊 崇尚하다 보니 精神的 故鄉이라 할 善人社會나 우리가 바라는 仙境같은 곳은 幻想境이라 하여 멀리하고 있다. 이렇게 物質科學만 따르다 보면 人間의 價値도 道具 所有量으로 결정하여 간다. 그래서 人生의 肉身에 얼마나 편리하고 安樂한가에 따라 幸福을 기준하고 있으며 目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人生이 幸福을 肉體의 樂이 全部로 생각한다면 下等動物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어 풍선에 바람을 가득히 넣은 것처럼 살찐 짐승이 눈을 반쯤 감고 누워있는 모습은 人生으로 따를 수 없는 그들 나름의 幸福에 陶醉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

高級 乘用車에 비딱하게 半쯤 누워있는 사람, 高級 料亭에서 最高 酒類에 豪食(호식)하는 사람이 가장 幸福할까?

肉身의 樂은 위에 예든 것 같은 下等動物과 人生은 그들이 느끼는 感度는 大差가 없다고 할 것이나, 精神的 幸福은 그 限界가 無窮하니 바로 道德目에 따라 多樣하게 展開된다.

神仙이 修得해야 할 德으로 前說한 眞·善·美·聖 등 諸德은 肉體에 局限된 肉欲 充足과는 비교의 對象이 아니다.

오늘날 自然科學이 추구하는 文化像은 肉體 便利 肉欲 充足을 目的한 低

質幸福人을 指向하는 文化觀이다.

이러한 文化觀으로 未來史를 창조하여 간다면 人類는 墮落史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누가 이 方向을 逆轉할 것인가?

大教育者 大宗教人에 기대할 밖에 없다. 그래서 典經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인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6)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써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⁷⁾

動物은 動物이 가는 길이 있고 人間은 人間이 가야 할 길이 있어 各 動物道와 人道가 있는 바, 人道는 倫理와 相生之道이다. 現代는 人間이 物質의 奴隸(노예)가 되는 時代여서 尊嚴한 人間은 사라져 간다.

이 때를 당하여 人間社會를 仙境 만들고 人間을 神仙 志向하는 人類의 先覺 大指導者 本받으려는 운동은 21世紀로부터 後天 新 歷史期로 改革하려는 處方의 實踐이다.

本 論文의 主旨는 地上天國 仙境을 幻想鄉으로 보지 않고 人間이 만들 수 있는 目的的 人間社會像이라 보며 그 主役 人間이 神仙이요, 神仙 될 資格要件이 참(眞)되고 착(善)하고 아름답(美)고 거룩(聖)하고 그 外의 諸德을 두루 갖춘 全德人 됨이다.

地上天國인 仙境을 建設하자면 마치 高級 建物を 건축하자면 有能한 建築技士가 있어야 可能하듯, 仙境을 건설하자면 神仙級 人間을 먼저 만들 일이다.

木手나 土木技士 없이 家屋을 自力으로 짓는다면 不可能하며 自己가 남

6) 典經 : 예시 9 313面

7) 典經 : 예시 6 312面

하는 것 본 것으로는 下級屋되어 집을 버린다.

地上天國으로서의 仙境은 前無한 最上社會임으로 그 나라 세울 主役仙人은 아직 人類史에 없든 全德人되게 함을 거듭 강조한다.

II. 世界開闢을 위하여

1. 東方禮義之國의 先導任務

地球에 언제부터 人類가 살기 시작하여 文明이라 할 文化를 창조하여 왔는지는 人類學者가 아니기 때문에 이 分野에 관한 言及은 피하기로 한다.

다만 人類史가 몇 百萬年이나 될 만큼 長久하지는 못한 史實은 宇宙內 星群中에서 그리 크다 하지 못할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의 人類生活像으로 볼 때 驚異的이라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宇宙的 次元에서는 크다 못할 地球에서 人類들은 東西로 分離되어 異質의 生活樣式을 하여왔고 意識構造까지 獨自의 方式을 갖는 경우가 많다. 물론 人種이 多樣해서 그럴 수 있다 하겠으나 衣 食 住의 貧富 差異와 思考 思想의 水準과 上下의 差異도 平準化까지는 먼 상태에 있다.

특히 東西文化의 異質性은 東道 西器라고 할만큼 東洋人들은 精神文化 主로 道德文化에 注重하여 왔고 西洋人들은 道具文化 改發에 힘써 왔음이 사실이다. 그래서 東洋은 道德文化가 앞서 왔으나 生活文化와 經濟面에는 뒤진바 있고 西洋은 道德과 倫理面에는 관심이 크다 못하겠으나 道具改善과 經濟力 向上에 注力하여 그 分野의 發展은 앞섰다.

東洋은 安貧樂道로 自足하나 西洋은 道具人生 經濟的 動物化하는 경향 막을 수 없는 상태이다.

쌍방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며 人間의 正道를 離脫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世紀까지의 人類史가 이 정도라면 第三者 宇宙人이 있다 해도 地球人들은 未開하다고 評하는 것이 公正할 것이다.

21世紀부터 새 歷史期가 시작된다면 東道西器的 즉 各 半分文化를 청산하여 東西共同道器時代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지금까지의 人類史

는 未開期를 면할 수 없는 것이 史實이다.

前章에서 引用한 上帝의 말씀

「...서양의 모든 문물은...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天理를 흔들고 自然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罪惡을 끊임없이 저질러 神道の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常道가 어겨지고 三界가 混亂하여 道の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典經 : 교운 1장 9절 155-156面)

이 상태의 現 人類史는 自滅을 向하여 가는 모습이라 하겠다.

歷史는 歲月이 흘러간다고 하여 自然 發展하는 것이 아닌 것은 走行하는 車와 같아서 運轉士가 어떻게 운전하는가에 따라 바르게 또는 잘못 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歷史는 絶대로 正行하지 않고 誤行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上帝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覺醒의 言明이다.

人類史가 새 世界로 開關하자면 各 半分 未開文化期를 延長하여서는 안되고 統一地球村이 되어 한다.

그리고 精神 道具 相和相用하여 어느 하나 缺乏(결핍)없이 100% 物心文化期가 열려야 한다.

天國에는 物心이 豊饒한 全文化界일 것이고 未來의 仙境이 열린다면 天國과 다를 것 없는 物心 豊饒 全文化場일 것이다.

거기는 想像의 世界가 아니라 지금 地球人들이 東西 各己 半分文化를 추구하는 樣式을 統一하면 그 可能性을 엿볼 수 있다.

‘世界開關’이라는 論理가 매우 誇張(과장)된 理想論인 듯 하나 이 글에서 地球村을 未開世界라 보고 아직 東西洋의 文化가 半分 不完全文化地帶임을 지적하고 이 東西의 文化壁을 허무는 것으로 시작하여 地上天國으로서의 仙境을 세울 希望을 다질 것을 強調한다.

筆者는 現 地球村을 半分文化村이라 보고 早速히 統一文化地球村이 될 것을 주장하며 그것이 第一次 世界開關이라 본다.

第二 世界開關은 地上天國으로서의 仙境思想을 世界化하는 일이다.

天國으로서의 仙境思想은 本 論文과 14輯의 拙者의 論文 ‘地上神仙과 人

間改造 可能性에 관한 研究'에서 詳說한 바와 같이, 幻想論이 아니라 科學的 論理性을 밝아 가면서 論述하기 힘쓴 바 있어 無理한 論調는 없을 것이다.

世界開闢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宗教에서 강조한다고 成事될 일이 아니라 人類 모두가 所望하는 일ियो 合理的으로 萬人에게 可能한 思想 이어야 한다.

多幸히 神仙思想은 우리 韓國民族이 傳來로 소망하여 온 思想이요, 韓民族은 과거로부터 東方禮儀之國의 後裔(후예)로 共認되어 온 傳統을 살린다면 世界人 가운데 仙境 先導民族이 될 것이다.

2. 仙道の 世界化

世界가 開闢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地球村 人間社會가 모두 天國 다를 것 없는 仙境이 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小數 한 宗教人이나 一部 民族 國民만 되는 일이 아니라 全世界人이 仙人되어야 하는 일이다.

儒學은 基本으로부터 目的論까지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에 있는 것과 같이 仙人 仙境되려는 것도 基礎論이 確固하여 全人이 合理的으로 實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儒敎의 가르침의 경우 '나' 一身이 修身하는 것도 一次가 格物, 二次가 致知, 三次가 誠意, 四次가 正心, 이후에야 五次 修身되고, 六次가 齊家, 七次가 治國, 及其也 八次인 平天下가 可能하다고 한다.

自己 한 몸도 修身 못하는 者는 自己의 家庭을 다스릴 수 없고, 그런 者는 國家를 다스리는 政治人 될 資格이 없고, 그렇게 世相사람들이 一身 一家 一國을 모두 못다스린다면 世界社會는 混亂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

儒學이 얼마나 精密하고 科學的인가 一身 修身하는데 基礎를 '格物'해야 한다고 한바 그 '格物'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에 있다.

自己마다 잘 안다고 하나 統一되지 못하고 百人 百說하니 모두 옳다고 못하겠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論文을 쓰자면 長篇이 되겠기에 여기서는 省說하고 要旨만 든다.

「所謂致知 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即物窮其理也. 盖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有未窮故 其知 有未窮也. 是以 大學始教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 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 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格物 此謂知之至也.」⁸⁾

<解釋>

이른바 致知가 格物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知識을 極致에 達하게 하자면 物에 卽해서 通達함에 있음을 말한다. 人心의 靈特함이 知覺이 없을 리 없고 天下의 萬物은 理致가 없을 리 없건만 오직(사람이) 그 理致를 通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知覺 또한 會徹하지 못한 것이다. 이 까닭에 大學에서 먼저 가르치는 것은 學者로 하여금 天下의 事物에 卽하여 이미 알고 있는 知識의 理致를 土臺로 더욱 窮理하여 그 至極함을 求할 진대 노력함이 오래인즉 하루 아침에 光明하게 通達되니, 이 境地에 이르면 못 事物의 表裏 精粗 理致에 도달않함이 없고 내 마음의 實體와 全作用이 밝아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物格이라 이르고 至極함을 안다고 한다.

이것은 程子の 說을 本단 朱子の 定說이나, 筆者의 큰 疑問은 一身을 修身하는 基礎가 萬物의 理致를 通達하는 豁然貫通의 境地에 이르는 것이 一次 基礎요 거기를 거쳐야 二次인 知覺, 三次 誠心 四次 正心해서 五次 修身이 可能하다면 世上 사람 가운데 修身할 사람 몇이나 되겠는가? 인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新說을 발표했다.

즉 格物의 「格」은 「分別」이요, 「物」은 客體로서의 物이든 意中之事이든 나의 앞에 부닥치는 「事態」와 「物情」 현대 用語로 「狀況」을 뜻하며 致知의 「致」는 「覺」이요, 「知」는 「智慧」로 보는 바이다. 무엇 보다도 大學의 本義는 基礎 確立해야 大志의 成事가 可能하다는 原理論이다. 그 最先決事가 事理判斷의 正確, 先後本末의 分析, 主客의 確立등을 明示하여 人間社會 秩序의 和平한 營爲로서 人間마다 타고난 性命을 萬全 發揮토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였다.

그 方法의 첫 條項을 '格物' 다음은 '致知'를 明示하여 事理의 分別, 主體와 客體의 分揀(분간), 즉 主從原則을 판단할 줄 알아야만 人間된 所任을 堪當(감당)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⁹⁾

8) 大學：大學傳 第五章

9) 公州師範大學 論文集 第七輯 1969年号 安鍾法 論文 '大學의 格物 致知 攷' 參照

왜 地上天國으로서의 仙境 建設을 論하는 論文에서 儒學의 政治教科書라 할 大學의 '格物致知'를 言及했는가?

儒學은 修己 安人之道이며 修身 平天下의 學이라면 곧 仙境 實現學이라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從來의 神仙은 墮落한 世相을 피해서 深山 幽谷 無人之境을 찾아갔으나 우리가 찾는 神仙과 세우려는 仙境은 바로 世界化한 仙境이며 모두 神仙되게 하자는 것이다. 無神 無信論者까지 首肯하고 所望할 仙境과 神仙像은 世界人이 따라와야 한다.

世界開闢은 天神이 下降하여 人間 모르게 突然 建設한다고 생각하면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千 萬名 있어도 못보고 一生을 끝낼 것이므로 그런 世界開闢은 人事圈에서 벗어난 神權事여서 우리 人生이 關與할 성질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世界를 地上天國으로 건설하자면 全人類가 仙人되겠다는 마음으로 一心되어야 하고 無惡 全善人되는 길을 實踐해야 하겠으니 그것이 仙道를 離脫하지 않는 것이다.

人間은 人間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人道인 倫理를 지키는 것처럼 仙人되려는 사람은 仙道만 지키고 가는 것이 當然한 義務인 것이다.

仙道가 別道가 아니다. 動物들이 本能대로 살아가는 下位道가 있고 그 위가 人道 人間의 道인 倫理의 길ियो 그 위가 上位人間道로서의 仙道일 것이다. 현재 地球村은 사람은 많아도 人間이 不足하여 人道·倫理를 지켜야 한다고 絶叫(절규)하는 이 때, 上位人道인 仙道가 世界化되자면 地上天國 建設을 目的으로 하는 宗教人의 高倫理 實踐努力에 最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幻想이 아니라 宗教人 自己가 발로 걸어가는 人作境임을 世界人이 알아야 世界化될 것이요 世界人이 모두 善行의 努力없이 奇蹟을 바란다면 農夫가 봄에 씨 뿌려 가꾸지 않고 가을에 收穫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本文에서 儒學의 大學之道를 밝힌 바 格物로 시작하여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하는 順序는 地上天國 仙境을 建設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으니 「平天下」와 「地上天國」하려는 最善의 努力을 쏟을 때 希望은 期約할 것이다.

結 論

‘天國’이라면 上帝를 爲始하여 天神 天使가 사는 곳일 것이요 地上天國은 天國과 다름없는 最上의 理想的 人間의 나라를 말하며 거기가 바로 仙境일 것이다. 地上天國을 세우자면 地上에 神仙이 살 수 있는 仙境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누가 仙境을 만드는가? 할 때 人家는 人間이 만들 듯 仙人인 神仙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論理에 따라 地上天國으로서의 仙境을 건설하자면 地上 人間들이 各者 神仙되는 修道에 專心하여 萬人이 仙人으로 一心되어야 한다.

筆者는 神仙을 過去史에는 없었던 眞·善·美·聖 등 諸德을 두루 갖춘 上位聖人으로 보고, 그 길은 各者 儒道의 修道와 다를 것 없이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의 路線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안다.

地上天國이 되자면 地球村이 天國과 다름없는 最善 最上의 人間社會가 된다는 말과 같은 바, 이것은 어느 特定 宗教에서만 부르짖을 소리가 아니라 全 人類의 所望이어야 人類의 未來史는 希望이 있다.

이제 神仙 仙境을 幻想像이라 보지 말고 全 人類의 純朴한 良心에서 우려 나오는 高潔한 天心像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高貴한 人心이라면 그이는 天心과 通하여 天人이요 그이가 仙人으로서 神仙의 길에 入道했다.

人間을 이 길로 引導하는 宗教라면 참으로 後天 新世界를 開闢하는 偉大한 創造者 役割을 할 것이다.